

01. 다음 유물을 남긴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은허 유적을 남겼다.
- ② 지구라트를 축조하였다.
- ③ 사자의 서를 제작하였다.
- ④ 올림피아 제전을 개최하였다.
- ⑤ 하라파와 모헨조다로를 건설하였다.

1-03. 문명의 발생
메소포타미아 문명, 난이도 下
Key-Word
 : 수메르인들이
 : 우르의 왕이
 : 쐐기 문자

- ① 상(商) 왕조
- ③ 이집트 문명
- ④ 그리스의 폴리스
- ⑤ 인도 문명

가장 합리적인 개념의 시작 p.3

★메소포타미아 문명**

01. 지역적 특징

- 비옥한 초승달 지대(현재 이라크 일대)
- 메소포타미아(Mesopotamia)
: '두 강 사이의 땅' → 티그리스강 ~ 유프라테스강 사이
- 불규칙한 범람, 여름철 건조 기후 → 관개 시설의 필요 증대
- 개방적 지형 구조 → 이민족의 침입 빈번, 여러 왕조 흥망



<구대아삼>



<메소포타미아 지역>

02. 왕조 변천

B. C 3500년 경 형성기	천문기를 가진 수메르 인이 도시 국가(우르, 우르, 라가시) 건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토대 마련
B. C 2350년 경 발전기	아카드 인이 수메르 인 정복 후 통일 왕국 형성(사르곤 1세 때)
B. C 1830년 경 통일기	아무르 인이 바빌로니아 왕국 건설 함무라비 왕 때 전성기(중앙집권, 수메르의 옛 법을 집대성해 함무라비 법전 편찬)
B. C 1530년 경 쇠퇴기	인도-유럽어계의 히타이트, 카시트의 침입으로 바빌로니아 왕국 멸망 B. C 16C 헤브라의 가나안에 이주, 페니키아 B. C 12C ~ 9C 활발한 상업 활동 B. C 612년 아시리아에 의해 오리엔트 통일



<함무라비 법전>

03. 문명의 특징

- 1) 정치
 - 신정(신권) 정치
: 제사장의 우두머리인 국왕이 신(神)의 대리자로 통치, 신권과 군인(전사)이 지배층 형성
- 2) 사회·문화
 - 농업의 발달, 수레의 사용, 상공업 발달
 - 쐐기 문자(설형 문자, 점토판) 사용
 - 현세 중시('길가메시 서사시'), 다신교(도시 국가마다 다른 신을 섬김)
 - 신전 지구라트(ziggurat) 건설
 - 함무라비 법전(바빌로니아 왕국, 보복주의·계급주의 원칙)
- 3) 과학
 - 60진법 고안 → 원주는 360도, 1분은 60초, 1시간 60분, 1일 24시간
 - 태음력 사용(1주 7일, 1년 12개월), 점성술 유행, 천문학 발달



<쐐기 문자>



<바빌로니아 인장>

2025 수능 특강 p.09

태양 아래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는 신들뿐이다. 인간의 수명은 유한하므로 사람들이 이 하는 일은 연기처럼 금세 사라져 버리네. 나는 전사하여 내 명성을 온 누리에 널리 떨치리라. '길가메시는 두려운 흠바버를 물리치고 모래밭판 전투에 생명을 바쳤다.' 나의 자손 만대를 위해 그 명성을 영원히 전하리라.

『길가메시 서사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도시 국가인 우르의 왕 길가메시의 모험담을 노래하였다. 이 서사시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여러 신을 숭배하는 종교적 특징과 현세적인 삶을 중시한 수메르인의 세계관이 반영되었다.

02. (가) 왕조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문학으로 만나는 세계사

구중궁궐에 연기와 먼지가 피어오르니
수천수만의 수레와 기병이 서남쪽을 향하여 달아났네.
화려한 깃발 흔들리며 가다 서다 하더니
도성 문에서 서쪽으로 나가 백여 리밖에 못 나갔네.
황제의 군대가 발걸음 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아름다운 여인이 말 앞에서 죽었다네.

[해설] 이 시는 백거이가 지은 「장한가」의 일부로, 양귀비를 잃은 현종의 회한을 표현하고 있다. [가]의 절도사 안녹산이 반란을 일으키자 양귀비는 현종과 함께 피란 가던 도중에 죽음을 맞았다.

- ① 당삼채를 곁는 도공
- ② 홍루몽을 읽는 신사
- ③ 성리학을 공부하는 사대부
- ④ 수시력 편찬에 참여하는 관리
- ⑤ 곤여만국전도를 제작하는 선교사

2-01-2) 위진 남북조 시대와 수·당 제국의 발전
당 제국의 발전, 귀족적·국제적인 당의 문화, 난이도 下
Key-Word
: 양귀비를 잃은 현종(재위 712~756)의 회한
: 절도사 안녹산이 반란을 일으키자, 75년

- ② 청, 1791년 이후
- ③ 남송, 1177년 이후
- ④ 몽골(원), 1281년
- ⑤ 명, 1602년

☆ 가장 합리적인 개념의 시작 p.136

【★당(618~907)의 발전과 쇠퇴】

05. **현종(이융기(李隆基), 재위 712~756)**
- **개원(開元)의 치세(治世), 713-741**
: 무후·위후 시기에 누적된 폐단 척결
 - **천보(天寶, 742-756)의 쇠(衰)**
: 환관 고력사(高力士, 684-762)의 전횡
: 비(妃) 양옥환(양귀비) 총애 → 양국충(楊國忠, 양쇠) 중용
: 사회·경제 혼란 발생
 - **탈라스 전투(The Battle of Talas, 751) 패배**

06. **안사(安史)의 난(755~763)**
- 배경
: 절도사 세력의 성장
: 양국충(楊國忠)의 권력 전횡
 - 전개
: 천보 14년 **범양(范陽) 절도사 안녹산(703-757)**의 반란 → 뤼양(洛陽) 점령 → 고선지 장군의 장안(長安) 진출 저지 → 안녹산의 장안성 함락(756) → 안경서의 사주로 안녹산 피살(756) → **사사령**(?-761)의 지휘권 계승 → 사조의의 사사령 살해 → 당군(唐軍)이 사조의의 군대 격파(763)
 - **안사의 난을 전후한 당의 사회 변화**




☆ 2025 수능 특강 p.25

다음 자료에 나타난 왕조 시기의 상황으로 옳은 것은?

우문옹이 상서하였다. “천하에 호구를 숨기고 도망 다니면서 교묘히 부병의 의무에서 빠지는 자가 심히 많습니다. 청컨대 점검과 단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 장열이 현종에게 건의하여 장사(壯士)를 모집하였다. 10일 사이에 정예병 13만 명이 모였다. 이들을 여러 위(衛)에 나눠 예속시킨 뒤 교대로 수도에 올라와 숙위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집으로 돌아가 쉬게 하였다. 이 진과 달리 병농이 분리되었다.

- ① 상앙이 등용되어 개혁을 추진하였다.
- ② 공영달 등이 오경정의를 편찬하였다.
- ③ 사마천이 기전체의 사기를 저술하였다.
- ④ 동중서의 건의에 따라 태학이 세워졌다.
- ⑤ 혜강 등 죽림칠현이 청담을 주고받았다.

03. (가) 황제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군대 동원의 부절[甲兵之符]
오른쪽은 황제에게[右在皇帝]
왼쪽은 양릉에 있다[左在陽陵].

이 청동 부절은 원래 황제와 장수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있던 것이다. 사신이 황제의 부절을 가지고 가면 양릉에 주둔한 장수는 자신의 것과 맞춰 보고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 후 명령을 수행하였다. **전국 시대의 혼란을 수습하고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가]은/는 군대를 동원하라는 명령의 증표로 이 부절을 사용하였다.**

- ① 만리장성이 축조되었다.
- ② 맹안 모극제가 실시되었다.
- ③ 장건이 대월지에 파견되었다.
- ④ 통제거 등 대운하가 건설되었다.
- ⑤ 9품중정제로 관리가 선발되었다.

2-01-1) 춘추 전국 시대와 진·한 제국
진(秦)시황제(~기원전 210), 난이도 下
Key-Word
: 전국 시대의 혼란을 수습하고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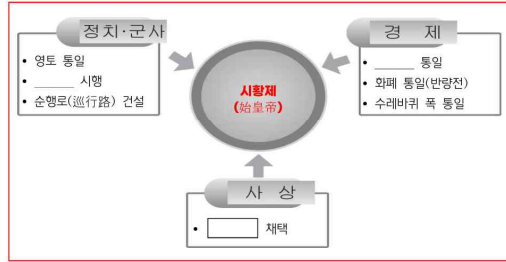
- ② 여진(금)
- ③ 한 무제, 기원전 139년
- ④ 수 양제, 통제거(605) · 영제거(608) · 강남하(610)
→ 운하 개통(610)
- ⑤ 위진 남북조 시대

가장 합리적인 개념의 시작 p.125

★ 통일 왕조 진(秦, 기원전 221~기원전 206)



- 01. 통일 배경**
- 서북쪽에 위치해 북방 민족의 철기와 기마 전법 수용
 - **상앙(?~기원전 338)의 변법**
: 법가 사상을 바탕으로 한 개혁으로 국력 증대
- 02. 시황제(始皇帝, 재위 기원전 246~기원전 210)의 정책**
- 진왕 정(政), **셴양(咸陽) 도읍**
 - 승상 이사(?~기원전 208)의 개혁 정치
 - 중앙 집권 체제 확립
: **군현제(36개 군) 시행, 순행로(巡行路, 전국적 도로망) 건설**
: 지방 유력자의 수도 이전
 - **남아태각석(郿邪台刻石, 기원전 219), 태산각석(泰山刻石, 기원전 219) 등 진칠각석(秦七刻石)**
 - **화폐(반량전(半兩錢), 도량형, 문자[소전체(小篆體)], 수레바퀴의 폭 등 통일**
 - **분서갱유(焚書坑儒, 기원전 213~기원전 212)**
: 법가 이외의 사상을 탄압하고 사상의 통일 모색 → 비관 세력 억압



- **통일의 흉노 정벌(기원전 215) 이후 만리장성 축조**
- 영토 확대(중국 영토의 원형 마련)
- 광둥 지방과 베트남 북부까지 영토 확장

2025 수능 특강 p.23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떤 사람이 말하였다. “하는 목덕(木德)을 얻어 청룡이 나타나고 초목이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상은 금덕(金德)을 얻어 은(銀)이 산에서 넘쳐 흘렀습니다. 주는 화덕(火德)을 얻어서 적오(赤鳥)의 상서(祥瑞)가 있었습니다. 지금 [가]은/는 6국을 통일하였으므로 다시 수덕(水德)의 때입니다. 예전에 목공께서 사냥을 나가 흑룡(黑龍)을 잡았는데 바로 수덕이라는 단서입니다.” 이에 [가]의 황제는 황허의 명칭을 덕수(德水)로 고치고, 10월을 해의 처음으로 정하였다. 또 흑색을 높이고, 정사는 법지를 숭상하였다.

- ① 은허 유적을 남겼다.
- ② 광둥 지역으로 영토를 확장하였다.
- ③ 조정에서 선비어 사용을 금지하였다.
- ④ 이민족의 침입을 받아 수도를 옮겼다.
- ⑤ 중정관으로 하여금 인재를 추천하게 하였다.

04. (가) 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소콜루 메흐메트 파샤는 크리스티고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가)의 테브시르메 제도에 따라 징집되어 이슬람교로 개종하게 되었다. 그는 엄격한 교육과 훈련을 거쳐 예니체리 군단에 편성된 후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하였다. 대제상이 된 후에는 술탄이만 1세의 헝가리 원정에 동행하기도 하였다.

- ① 티마르제를 실시하였다.
- ② 카스트제를 확립하였다.
- ③ 쿠티브 미나르를 건설하였다.
- ④ 투르·푸아티에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 ⑤ 탈라스 전투에서 당의 군대를 격퇴하였다.

3-02-3) 튀르크 제국의 출현

오스만 제국의 성립과 발전, 난이도 下

Key-Word

- : 테브시르메 제도에 따라 징집되어
- : 이슬람교로 개종
- : 예니체리 군단에 편성
- : 술탄이만 1세(재위 1520~1566)의 헝가리 원정에 동행

- ② 아리아인
- ③ 아이바크 왕조, 1202~1368년
- ④ 프랑크 왕국, 메로베우스 왕조, 732년
- ⑤ 아바스 왕조, 751년

가장 합리적인 개념의 시작 p.215

★오스만 제국(1299~1922)

01. 성립

- 오스만족
- **아나톨리아에서 건국**

02.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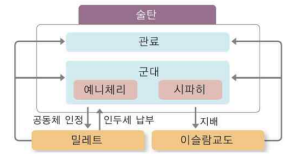
- 비잔티움 제국의 크리스티고 연합군 격파
- : 발칸반도 장악, **술탄의 칭호 사용**
- 앙카라 전투 패배(⇔ 티무르, 1402)
- **메(흐)메트 2세** (㉔), 재위 1451~1481)
- : **콘스탄티노폴리스 정복(1453)**
- : **비잔티움 제국 멸망, 이스탄불로 개칭**
- : 유프라테스강 상류, 흑해 연안까지 진출
- **셀림 1세** (㉕), 재위 1512~1520)
- : 찰디란 전투(⇔ 사파비 왕조의 이스마일 1세, 1514) 승리
- : 이집트, 시리아의 **맘루크 왕조 정복(1517)** → 메카, 메디나의 보호권 장악
- : 수니파 이슬람 세계의 지배자로 군림
- : 아바스 왕조의 후손으로부터 칼리프의 칭호 계승
- : **술탄·칼리프 제도 확립**(정교일치, 1517)
- **솔레이만 1세** (㉖), 전성기, 재위 1520~1566)
- : 로도스섬 장악(1522), **헝가리 정복, 빈 포위 공격과 실패**(1529), 바그다드 점령(1533)
- : **투터과 제후들에게 군사적 지원 제한**(1552)
- : **프레베자 전투 승리**(⇔ 에스파냐와 로마 교황의 연합 함대, 1538)
- ↳ 동지중해의 제해권 장악(**지중해 교역에서 주도적 역할**) → 동·서 무역의 이익 독점
- : 법적 편찬(선대 술탄들이 공포한 법령 정비, 입법자), 건축과 문학 및 회화 등 예술 분야 후원
- **셀림 2세** (㉗), 재위 1566~1574)
- : **레판토 해전 패배**(⇔ 에스파냐 중심의 크리스티고 연합 함대, 1571)
- : **지중해 제해권 상실**



<오스만 제국의 발전>

03. 사회·군사 제도

- **티마르 제도 실시**(1438~)
- : 군정관·기병에게 토지에 대한 징세권(티마르) 부여
- **밀레트 제도**(1453~)
- : 인두세 납부 조건으로 **이교도의 종교 공동체 인정**
- **테브시르메 제도**(→ 크리스티고도 소년 징집)
- : 발칸반도의 크리스티고도 청소년을 강제 징집
- **예니체리(Yenicheri, Janissary, 1330-1826) 육성**
- : 새로운 군대(튀르크어), 술탄의 친위 부대



<오스만 제국의 통치 체제>

가장 합리적인 개념의 시작 p.48

(가) 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림은 (가)의 제10대 술탄 솔레이만 1세의 초상화이다. 그는 선대 술탄들이 공략에 애를 먹었던 베오그라드와 로도스섬을 점령하였고 헝가리 정복에 이어 오스트리아 빈을 포위 공격하여 합스부르크 왕가를 위기로 몰아넣었다. 그리고 프레베자 해전에서 교황청과 에스파냐, 베네치아 등의 연합 함대를 격파하고 동지중해의 해상권을 장악하였다.

- ① 수도를 이스파한으로 옮겼다.
- ② 시아파 이슬람교를 국교로 삼았다.
- ③ 북아프리카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하였다.
- ④ 셀주크 튀르크에 정치적 실권을 부여하였다.
- ⑤ 지방에 왕의 눈이라고 불린 감찰관을 파견하였다.

05. 밑줄 친 '이 전쟁'의 결과로 옳은 것은?

우리 아테네는 델로스 동맹을 주도할 뿐 아니라 바다도 장악하고 있습니다. ... (중략) ... 이 전쟁에서 이겨 자유를 지키면 지금까지 잃은 것을 쉽게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페르시아에 맞서 싸웠던 선조 못지않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후세 사람들은 우리가 이 전쟁에서 **켈로폰네소스 동맹에 굳건하게 맞섰다고 기억할 것입니다.**

- ① 베르딩 조약이 체결되었다.
- ② 라티퐁디움 경영이 확대되었다.
- ③ 아테네가 해상 제국으로 발전하였다.
- ④ 스파르타가 그리스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였다.
- ⑤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았다.

4-01-1) 그리스 세계의 성립과 발전
 펠로폰네소스 전쟁(기원전 431~기원전 404), 난이도 **↓**
Key-Word
 : 우리 아테네는 델로스 동맹을 주도할 뿐 아니라
 : 펠로폰네소스 동맹에 굳건하게 맞섰다고 기억할 것

- ① 843년
- ② 로마, 포에니 전쟁(기원전 264~기원전 146) 이후
- ③ 그리스·페르시아 전쟁(기원전 492~기원전 479)
- ④ 악티움 해전(기원전 31) 이후

☆ 가장 합리적인 개념의 시작 p.13~14

06. ★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기원전 492~기원전 479)

- 1) 배경
 - 기원전 6세기 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다리우스 1세의 팽창
 - : 아나톨리아(소아시아)의 그리스 식민 도시 압박 → 아테네의 그리스 식민 도시 지원
- 2) 경과
 - 페르시아의 침입과 그리스 세계의 단결
 - : 마라톤 전투(기원전 490년)
 - : 테르모피레 전투(기원전 480년)
 - : 살라미스 해전(기원전 480년)
 - 아테네, 스파르타 중심의 **그리스 연합 승(勝)**
- 3) 영향
 - 아테네의 번영
 - : **델로스 동맹(기원전 477)의 맹주**
 - : 강력한 해상 제국으로 발전
 - 참전 시민들의 발언권 강화
 - : **민주 정치의 발전**



【폴리스의 쇠퇴】

01. ★ 펠로폰네소스 전쟁(Peloponnesian War, 기원전 431~기원전 404)

- 1) 배경
 - 폴리스 간 반목
 - : 델로스 동맹(아테네 중심) ↔ 펠로폰네소스 동맹(스파르타 중심)
- 2) 전개
 - 전쟁 초기에 페리클레스 사망
 - ↳ 아테네 민주 정치의 중추(衆樞) 정치 전략
 - 펠로폰네소스 동맹의 승리로 델로스 동맹 해체
 - 스파르타의 패권 장악

우리 정치는 소수의 독점을 배제하고 권력을 다수에게 평등하게 분배하기 때문에 민주 정치라 불린다.
 그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비인간적 군사 훈련을 통해 용기를 함양하지만, 우리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그들의 전쟁에서 결코 밀리지 않고 있다.
 - 페리클레스의 전율자 추모사

02. 스파르타 시대(기원전 404~기원전 371)

- 공동체 의식 붕괴로 폴리스 간 반목과 갈등 지속
- 아테네, 코린트(Corinth), 아르고스(Argos) 등이 반(反)스파르타 전선(코린트 동맹) 형성

03. 테베(Thebes) 시대(기원전 371~기원전 338)

- 테베의 스파르타 격파
- 마케도니아 필리포스 2세(재위 기원전 359~기원전 336)의 테베 정복 → 폴리스 지배(기원전 338)


☆ 2025 수능 특강 p.67

02.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라케다이몬인들은 잇달아 사신단을 보내 아테네인들에게 포티다이아에서 철수하고 아이기나를 독립시키라고 요구하였다.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이 사신들은 아테네인들이 메가라 사람들을 놓아줌으로써 아티카 항구들에서 아테네가 개입하지 않고 그곳의 무역에 대해서도 손을 댄다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페리클레스는 사신들이 제기한 쟁점에 대해 양보하지 않았고 기존의 결정 사항들을 폐지하지도 않았다. 라케다이몬인들은 다시 사신단을 보내 평화를 유지하려면 아테네가 모든 그리스인에게 독립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을 제시하였다. 페리클레스는 다음과 같은 언설로 결국 전쟁을 결의하였다. "만일 여러분이 양보한다면, 저들은 여러분이 두려움 때문에 양보하였다고 생각하고서 즉시 더 큰 요구를 해 올 것입니다."
 - 투키디데스, 『역사』 -

- ① 티마르제의 시행 목적을 살펴본다.
- ② 지즈야를 폐지한 인물을 파악한다.
- ③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배경을 조사한다.
- ④ 투르·푸아티에 전투의 영향을 알아본다.
- ⑤ 이슬람 세력의 침입이 가져온 결과를 분석한다.

06.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이것은 이집트에서 출토된 유물로, 가운데 앉아 있는 아누비스 신에게 오른쪽의 파라오 복장을 한 **다리오스 1세가 제물을 바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가)의 **다리오스 1세는 이집트를 속주로 두어 총독을 파견하고, '왕의 귀'라고 불리는 감찰관을 보내어 총독을 감독하였다.**

- ① 티무르에 의해 건국되었다.
- ② 콘스탄티노폴리스를 함락하였다.
- ③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 ④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편찬하였다.
- ⑤ 페르세폴리스를 수도로 건설하였다.

3-01-1) 고대 서아시아의 통일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난지도 下
Key-Word
 : **다리오스 1세**
 : **이집트를 속주로 두어 총독을 파견**
 : **'왕의 귀'라고 불리는 감찰관을 보내어**

- ① 티무르 제국(1370~1507)
- ② 오스만 제국, 메(ᄃ)메트 2세, 1453년
- ③ 로마, 서지중해 장악, 기원전 146년
- ④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재위 527~565), 529년

가장 합리적인 개념의 시작 p.198

02.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기원전 559~기원전 330)

- 수도 **수사(Susa)**
- **키루스 2세(ᄃ)**, 재위 기원전 559~기원전 529
 : **리디아의 수도인 사르디스 함락, 신바빌로니아 정복** 등 서아시아 재통일
 : **다른 민족의 문화와 종교를 존중한 포용 정책**(아람어를 공용어로 사용)

나는 키루스이다. 세계 제국의 왕이자 위대한 왕이며 신(아후라 마즈다)의 뜻으로 공표하니, 내가 살아 있는 한 너의 전통과 종교를 존중할 것이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억압해서도 차별해서도 안 되며
 - 키루스의 칙령(기원전 539)



<키루스 원통(베키 문자)>


- 캄비세스 2세(ᄃ), 재위 기원전 529~기원전 522
 : **이집트 정복**
- **다리오스 1세(ᄃ)**, 재위 기원전 522~기원전 486
 : **페르시아 제국의 전성기(베히스툰(비시툰) 비문)**
 : 인더스강 유역에서 이집트에 이르는 영토 확보
 : 반란 평정, 정복 전쟁을 통해 그리스 식민지 정복
 : **페르세폴리스 건설(페르시아의 도시, 기원전 518~)**
 : 20여 개 속주에 **총독(사트라프) 파견**
 : **감찰 관리(왕의 눈·왕의 귀)를 파견해 총독 감시**
 : **왕의 길(수사-사르디스) 건설, 역참(驛站) 정비**
 : 화폐와 도량형 정비
 : 운하 최초 건설(지중해~홍해)
 : **그리스·페르시아 전쟁**(기원전 492~기원전 479)
 나, **마라톤 전투 패배**(기원전 490)
- **조로아스터교의 창시와 신봉**
- 속주 총독들의 반란, 지배층의 분열
- **알렉산드로스의 침공**(다리오스 3세, ★**이소스 전투(BC, 333)**·가우가멜라 전투(BC, 331))으로 멸망



<아시아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영역>

2025 수능 특강 p.40-47

조로아스터교의 상징인 파리버하르



다리오스 왕이 말하노라. 나 다리오스, 위대한 왕, 왕 중의 왕, 페르시아의 왕, 모든 나라의 왕, 히스타스페스의 아들이며 아케메네스 왕조 아르사메스의 손자이다. 아후라 마즈다의 축복으로 나는 왕의 자리에 올랐다. 아후라 마즈다는 나에게 왕국을 주었다.
 - 베히스툰(비시툰) 비문 -


다리오스 1세
 아케메네스 왕조의 다리오스 1세는 베히스툰산(현재 이란 케르만샤주) 중턱의 절벽에 자신의 업적을 기록한 베히스툰 부조와 비문을 조성하였다. 부조는 다리오스 1세가 조로아스터교 최고의 신인 아후라 마즈다의 축복 아래 신하들의 호위를 받으며 반란군의 우두머리를 밟고 서 있고, 그 뒤로 8명의 포로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02.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유네스코 세계 유산

유산 소개 | 유산 등재 | 유산 목록 | 자료실 | 자주 하는 질문

페르세폴리스



- ◎ 영문명 : Persepolis
- ◎ 국가 : 이란
- ◎ 좌표 : N29 56 3,984, E52 53 25,008
- ◎ 등재 연도 : 1979년

페르세폴리스는 (가)의 수도로 다리오스 1세 때 건설되기 시작하여 그의 아들 크세르크세스 1세 때 완성되었다. 이 도시는 (가)의 종교 및 외교 중심지였으며, 매년 국가가 주관하는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열렸다. 이후 페르세폴리스는 알렉산드로스에 의하여 파괴되었지만, 그 터에 일부 유적이 남아 있어 과거에 웅장했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 ① 에니체리를 창설하였다.
- ② 길가메시 서사시를 남겼다.
- ③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하였다.
- ④ 카르타고 등 여러 도시를 건설하였다.
- ⑤ 그리스 세계와의 전쟁에서 패배하였다.

07. 밑줄 친 '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군주는 안팎의 구별 없이 천하의 가운데에 서서 사해의 만민을 안정시키고 한결같이 인(仁)으로 살피, 가까운 것은 돈독하게 하고 먼 것을 받아들인다고 하였다. ... (중략)... 황제가 정사 태감인 정화, 왕경홍, 후현 등에게 여러 차례 명하여 구이(九夷)와 팔만(八蠻)의 길을 여시고 칙서와 예물을 하사하였다. 황제의 교화는 맑고, 두루 베풀은 끝이 없었다. - 『정사승람』 -

- ① 고조선을 정복하였다.
- ② 군기처를 설치하였다.
- ③ 자금성을 건설하였다.
- ④ 사교전서를 편찬하였다.
- ⑤ 삼변의 난을 진압하였다.

2-03-1) 명·청 제국의 발전
 명의 건국과 중화 질서의 회복, 영락제, 난이도 下
Key-Word
 : 정사 태감인 정화
 : 여러 차례 명하여
 : 구이(九夷)와 팔만(八蠻)의 길을 여시고
 ↳ 동쪽의 아홉 오랑캐, 남쪽의 여덟 오랑캐

- ① 한 무제(재위 기원전 141~기원전 87), 기원전 108년
- ② 청 옹정제(재위 1722~1735), 1732년
- ④ 청 건륭제(재위 1735~1795), 1782년
- ⑤ 청 강희제(재위 1661~1722), 1681년

가장 합리적인 개념의 시작 p.160

★명(1368~1644)의 건국과 발전

03. **선조 영락제(주체)의 통치** (㉠, 재위 1402~1424)
- 1) 통치 체제 정비
 - 정난의 변(靖難之變, 혜종 건문제로부터 제위 찬탈, 1399~1402)을 통해 즉위
 - **자금성(紫禁城) 건설** → 베이징 천도(1421)
 - **내각대학사(內閣大學士) 설치**
 - 동창(東廠)을 설치하여 환관의 정치 참여 허용
 - **운하 정비** → 강남 ~ 베이징, 물자 유통 활성화
 - 2) 적극적 대외 정책 추진
 - **몽골 원정**(군명 정벌), **베트남 북부 점령**(호 왕조 정복, 1407)
 - 티베트, 네팔 등을 조공국으로 삼음
 - 3) **정화(환관이자 무슬림, 1371~1433)의 해외 원정(1405-1433)**
 - 해금 정책 폐기, 7차례의 해외 원정으로 인도양 ~ 아프리카 동해안까지 진출
 - 국력 과시, **조공 체제 확대**, 동남아시아 화교(華僑) 진출의 계기



2025 수능 특강 p.28-33

(1) **건국** : 주원장(홍무제)이 난징에 도읍하여 수립(1368), 몽골을 북으로 몰아내고 한족 왕조 부활

(2) **체제 정비**

홍무제	• 재상제 폐지(6부 직접 통솔), 학교 설립, 과거제 정비, 육유 반포 • 어린도채토지 대장·부역형제호적 대장 검 조세 대장 정비, 이갑제 실시
영락제	자금성 건설 이후 베이징 천도, 내각 대학사 설치, 몽골 원정, 베트남 공격, 정화의 함대 파견

(3) **쇠퇴** : 환관의 득세로 정치 혼란 심화, 북로남역(북방의 몽골과 동남 해안의 왜구)의 침입 → 16세기 후반 장거정의 개혁(일조편법 확대 실시 등) → 임진왜란 참전, 후금(청)과의 전쟁 등으로 재정난 확대

(4) **멸망** : 과중한 세금 징수 등으로 농민 봉기 발생 → 이자성의 농민군이 베이징 점령(1644)

06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러 신하들이 다음과 같이 건의하였다. “제가 듣기로 천하를 얻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일정한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이미 남방을 차지하셨으니, 마땅히 몽골과 단절하고 난징에 도읍하여 영토를 넓혀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곧 중원을 엿보아 천하를 차지할 수 있고, 물러서더라도 장강을 경계로 스스로 지킬 수가 있습니다. 난징은 예로부터 용이 서리고 범이 걸터앉은 듯한 산세를 갖춘 계왕의 도읍이라 하니, 풍부한 병력과 물자로 몽골을 공격하면 이길 것이고, 수비도 굳건히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이를 받아들였다.

- ① 재상제를 폐지하였다.
- ② 군기처를 설치하였다.
- ③ 만한 병용제를 시행하였다.
- ④ 정화의 함대를 파견하였다.
- ⑤ 티베트와 신장을 정복하였다.

08. 밑줄 친 '이 제국'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제국의 **아크바르 황제**는 **라지푸트족 공주와의 결혼을** 통해 군사 동맹을 강화한 이후 **힌두교도에게 징수하던 순례세를 폐지**하였다. 이듬해 황제는 **비이슬람교도에게 부과했던 지즈야를 폐지**하였다. 이러한 **종교적인 관용 정책**은 이후 그가 **이슬람교와 힌두교, 시크교 등을 초월하는 신앙**을 제시하는 것으로 발전하였다.

- ① 자이나교가 출현하였다.
- ② 타지마할이 건축되었다.
- ③ 보로부두르가 축조되었다.
- ④ 간다라 미술 양식이 등장하였다.
- ⑤ 아잔타 석굴 사원이 착공되었다.

3-04-2) 무굴 제국과 힌두-이슬람 문화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융합, 난이도 下
Key-Word
 : 아크바르 황제(재위 1556~1605)
 : 라지푸트족 공주와의 결혼
 : 힌두교도에게 징수하던 순례세를 폐지
 : 비이슬람교도에게 부과했던 지즈야를 폐지
 : 이슬람교와 힌두교, 시크교 등을 초월하는 신앙을 제시

- ① 기원전 6세기경, 바르다마나
- ③ 8세기경, 샤일렌드라 왕조, 자와섬
- ④ 쿠산 왕조(30~275), 간다라 불상
- ⑤ 굽타 왕조(320~550), 굽타 양식

가장 합리적인 개념의 시작 p.237

★무굴 제국의 성립과 발전(1526~1858)

01. 성립

- **바부르**(재위 1526-1530)
 : 티무르(부계) + 칭기즈 칸(모계), 오스만 제국 **솔레이만 1세(재위 1520-1566)의 지원**
 : 북인도 진출 ⇨ 이브라힘 로디 격퇴(**파니파트 전투**, 1525) ⇨ 건국(델리, 1526)
 : 종교적 선입견을 품지 마라. 다양한 계절이 있는 것처럼 백성에게도 다양한 성향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 바부르가 죽기 전 아들 후마юн에게 남긴 유언(1530)

02. 발전

- **아크바르 황제**(재위 1556-1605)
 : **아그라 천도**, 수라트 침공(1573), **데칸고원 이남을 제외한 인도 대부분 통일**
 : 행정 관료 조직(만샨다르)을 정비하여 중앙 집권 체제 확립
 : 비(非)이슬람 차별 정책[바부르(1) ~ 후마юн(2)] 철폐
 ↳ **순례세 폐지, 지즈야 폐지(1579), 힌두교도를 관료로 임명,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융합 도모**
 : 지금까지 나는 나와 신앙이 다른 사람들을 박해하여 나와 함께 만들려고 하였으며, 그것을 신에 대한 귀리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지식을 쌓아감에 따라 나는 후회하는 마음에 사로잡혔다. **강제로 개종시킨 사람에게서 어떻게 성실한 신앙생활을 기대할 수 있을까?**
 - 아발 피줄, 『아크바르나마』

- : 라지푸트족 등 **토착 힌두 세력과 혼인 정책**['조다와 아크바르']
 : 개종한 힌두교도들이 다시 힌두교로 개종할 수 있는 법령 공포
 : 공평하고 효과적인 토지 개혁을 통한 농업 생산량 증가
 : 농민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제도 마련
 • 사자한(재위 1627-1658)
 : **타지마할 축조**(아그라, 1631-1653)
 • **아우랑제브 황제**(재위 1658-1707)
 : **인도 남부 지역까지 진출(최대 영토 확보)**
 : 잦은 전쟁으로 재정 악화
 : **이슬람 제일주의의 지향**
 ↳ **지즈야 부활(1679)**, 힌두 사원 파괴, 타 종교의 축제 금지, 이슬람 율법 샤리아(Shari'ah) 강제
 ↳ 힌두 세력 **라지푸트족의 반발, 마라타 왕국 수립(1674)**
 : **비비 카 마르크바라**(아우랑제브의 딸, '가난한 타지마할') 건립



03. 쇠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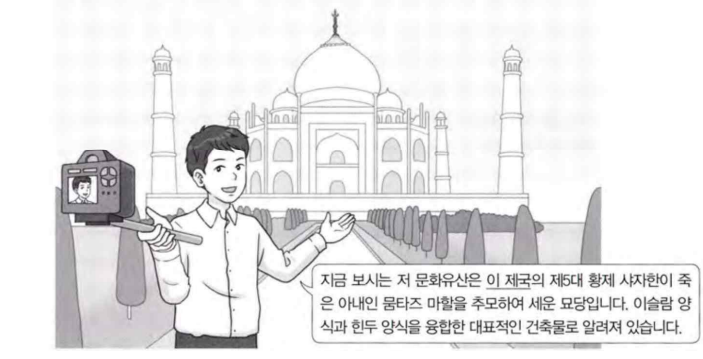
- 종교적 갈등 심화
 : 북부 **펀자브 지방의 시크교도(*고빈드 싱의 지도)**
 : 중부 인도 **마라타 동맹의 반란(1720-1818)**
 • 18세기 영국과 프랑스의 동서 해안 지방 침투로 악화 가속화

가장 2025 수능 특강 p.52-57

아크바르 황제는 자이푸르의 라지푸트 출신 공주와 결혼하였다. 이는 인도 북부의 유력한 힌두교 세력이었던 라지푸트 가문이 아크바르와 무굴 제국의 방파제 역할을 하였다는 의미였다. 또한 아크바르 황제는 이슬람교 외의 종교에 대해서도 관용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비이슬람교도에게 부과되었던 세금인 지즈야도 폐지하였다.

이슬람교도였던 아크바르 황제는 다른 종교를 존중하는 정책을 펴 힌두교도에게 관직을 개방하고 비이슬람교도에게 부과한 세금인 지즈야를 폐지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토착 힌두교도 여인과 결혼하여 힌두교 세력을 통합하고자 하였다.

6 밑줄 친 '이 제국'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우르두어를 사용하는 학생
- ② 사마르칸트를 수도로 삼는 왕
- ③ 시크교도의 반란에 가담하는 농민
- ④ 바부르 황제의 죽음을 슬퍼하는 백성
- ⑤ 페르시아어로 공식 문서를 작성하는 관리

09. (가) 막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오늘 만들 음식은 일본의 전통 조림 음식인 츠쿠다니입니다. 이 음식은 쇼군 직할지에 위치한 츠쿠다시마섬의 어부들이 잡어를 짬짬하게 줄여 먹었던 것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요, **산킨코타이 제도**로 (가)의 소재지에 왔던 **다이묘들이 지방 영지로 돌아갈 때**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이 음식을 가져가면서 전국에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 ① 도다이사가 창건되었다.
- ② 원이 두 차례 침략하였다.
- ③ 건당사 파견이 중지되었다.
- ④ 다이카 개신이 단행되었다.
- ⑤ 인공 섬인 데지마가 조성되었다.

2-03-3) 막부 정권의 변화와 발전
 에도 막부(1603~1867), 난이도 下
Key-Word
 : 산킨코타이 제도
 : 다이묘들이 지방 영지로 돌아갈 때

- ① 나라 시대, 745년
- ② 가마쿠라 막부, 1274년 · 1281년
- ③ 헤이안 시대, 894년
- ④ 아스카 시대, 646년

☆ 가장 합리적인 개념의 시작 p.190

[★에도 막부(1603-1867)]

01. 성립
 • 도쿠가와 이에아사(1543-1616)
 : 에도 막부 개창

02. 통치 체제
 • **막번 체제 확립**
 : 쇼군이 중앙과 지방의 직할지 지배, 지방의 다이묘들은 쇼군에 충성하는 대가로 번(藩, 영지) 지배
 • **산킨코타이(參勤交代) 제도(쇼군의 다이묘 통제)**
 : 『무가제법도(武家諸法度)』, [겐나령(1615) → 간에이령(1635)]을 기반으로 제정

제2조 다이묘(大名)와 소묘(小名)는 자신의 영지와 에도에 교대로 거주하도록 정한다. 매년 여름 4월에 참勤(參勤). '박'으로 나와 주군을 만남(拜)해야 한다.
 제3조 새로 성곽을 쌓는 것을 엄히 금지한다.
 제17조 500석 이상의 배 건조를 금지한다.
 제19조 크리스토프의 경우 전국 각지에서 더욱 엄히 금지해야 한다.

• 엄격한 신분 제도
 : 무사가 농민과 상공업자 지배, 병농분리(兵農分離), **조카마치(무사, 상공업자 거주) 발달**



<산킨코타이 행렬도>

03. 경제 변화
 • 농업 발달, 상품 작물 재배 증가, 도로망 정비로 상공업 발전
 • **조닌(町人, 도시 상공업자) 성장**
 : **기부나카미(株仲間, 상인·직인의 독점적 동업 조합)** 조직

☆ 슈인장(朱印狀)
 배를 타고 해외로 나가 무역할 수 있도록 허가한 증서로, 문서에 막부의 인장이 붉은색으로 찍혀 있었다. 슈인장의 발급 결과 동남아시아 각지에 일본인 마을이 생겨나기도 하였다.

04. 대외 정책
 • 해외로 진출하는 상인에게 **슈인장(朱印狀) 발급**(교역 공인력 상승과 통제 강화, 1604-1635)
 • 쇄국 정책 실시로 유럽 상인의 왕래 제한
 : **크리스토프 금교령(1612)**
 : 나가사키 항 개방(1570) → **데지마 건설**(포르투갈 상인, 1636) ⇨ 포르투갈 상인의 입항 금지(1639) ⇨ **네덜란드 상인에게만 교역 허용, 데지마 상관 이주(1641)**, 네덜란드 풍설사(세계 정세 보고서)

05. 문화
 • 선진 문물의 수용
 : 조선 통신사(1607-1811)
 : **란카쿠**[조선술·포술·천문학·의학 등 도입, = 난학(蘭學), ex) 『가이타이신쇼(해체신서)』(1774)]
 • **조닌 문화의 발달**
 : **기부키**(노래·춤 등이 어우러진 연극), **우키요에**(인물·풍속 등을 소재로 한 다색 목판화) 유행
 • 국학의 발달(18세기 후반)
 : 성리학에 반발, 고전에 있던 일본의 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 → 존왕양이 운동(1866-)의 기반

☆ 2025 수능 특강 p.37

8 밑줄 친 '이 막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키요에 전시회
- 사계(四季)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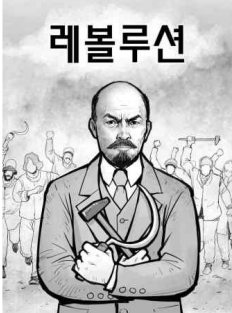
우리 단체는 이 막부 시대에 조닌층에서 널리 유행한 다색 목판화인 우키요에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우키요에에 담긴 사계절을 비롯해 옛 일본의 다양한 모습을 감상하며 일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양국 문화 교류의 기반을 다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기간 : ○○○○. ○○. ○○부터 1주일간
 장소 : △△ 갤러리
 입장료 : 무료

- ① 원의 침입을 막아내었다.
- ② 건당사 파견을 중지하였다.
- ③ 일본이라는 국호를 처음 사용하였다.
- ④ 미나모토노 요리토모에 의해 세워졌다.
- ⑤ 네덜란드를 통해 서양 의학 등을 받아들였다.

10. 밑줄 친 '이 혁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이달의 개봉 영화



이 영화는 제1차 세계 대전 중 러시아에서 일어난 이 혁명의 과정을 다룬 작품입니다. 전쟁 중단을 요구하던 볼셰비키가 이 혁명으로 임시 정부를 타도하고 소비에트 정부를 수립하는 격동의 역사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 ① 글라스노스트를 표방하였다.
- ② 레닌의 주도 아래 전개되었다.
- ③ 인클로저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 ④ 권리 장전의 승인을 이끌어 내었다.
- ⑤ 보스턴 차 사건을 배경으로 일어났다.

5-04-1) 제1차 세계 대전과 러시아 혁명
 1917년 러시아 11월(10) 혁명, 난이도 下
 Key-Word
 : 제1차 세계 대전 중 러시아에서 일어난
 : 전쟁 중단을 요구하던 볼셰비키가
 : 임시 정부를 타도하고
 : 소비에트 정부를 수립

- ① 고르바초프
- ③ 영국, 16세기와 18세기
- ④ 명예혁명, 1689년
- ⑤ 미국 독립 혁명, 1773~1783년

☆ 가장 합리적인 개념의 시작 p.261

02. 혁명의 전개(1917)

1) 3월(러시아력 2월) 혁명

- 제1차 세계대전 참전과 거듭된 패전 ⇨ 전쟁 장기화 ⇨ 식량 부족, 물자 부족과 물가 폭등
 - 페트로그라드에서 **식량 배급, 전쟁 중지, 차르 전제 정치의 타도** 등을 요구하는 노동자 파업 발생
- 우리는 부서의 청문을 통해 내다보이는 골목에서 울려 퍼지는 여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물기코를 해결하라!", "굴주림을 없애라!", "노동자에게 빵을!" 나와 몇 명 동료들은 즉시 창가로 달려갔다. 투쟁적인 분위기에 휩싸인 여성 노동자들의 무리가 골목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우리를 본 사람들이 "나와요!", "작업을 멈춰요!"라고 외치면서 손을 흔들기 시작하였다. 눈 물기가 창문으로 날아들었다. 우리는 시위에 참가하기로 결심하였다.
- 페트로그라드 노벨 기계 제작소 노동자의 회고

- 노동자·병사 대표 소비에트(Soviet, 평의회)를 조직하여 혁명 추진
- 니콜라이 2세(1868-1918) 퇴위와 로마노프 왕조의 붕괴
- 케렌스키(1881-1970) 주도의 임시 공화 정부 수립

2) 11월(러시아력 10월) 혁명

- 케렌스키 임시 정부의 **전쟁 지속, 토지 제도 개혁 연기** 등 미온적 개혁
 - 4월 테제(April Theses, 레닌, 스위스)
- : 전쟁 중지, 모든 권력의 소비에트 이양, 지주의 토지 몰수와 국유화 등 주장
- 레닌과 트로츠키가 이끄는 볼셰비키(Bolshevik, 다수파)의 무장봉기

임시 정부는 타도되었다 임시 정부의 각료는 거의 체포되었다. **소비에트 정권**은 지주귀족 및 교회의 토지를 무상으로 농민 위원회에 넘겨 그곳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또 군대의 완전한 민주화를 이루어 병사의 권리를 지켜 주고, 생산을 노동자가 통제하는 제도로 만들고, 적당한 시기에 헌법 제정 의회를 소집할 것을 보장하고, 도시에 대한 곡물 공급과 농촌에 대한 생필품 공급에도 신경을 쓰며, 러시아에 사는 모든 민족에게 진정한 자결권을 보장할 것이다.

- 전 러시아 소비에트 대회의 선언문(1917. 11. 8.)

☆ 2025 수능 특강 p.130-138

볼셰비키가 늘 반드시 일어난다고 말하던 노동자와 농민의 혁명이 완수되었습니다. 이 혁명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소비에트 정부, 부르주아가 참여하지 않은 우리 고유의 권력 기관을 소유하게 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억압받는 인민이 스스로 권력을 세운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에서 새 시대가 시작되고 있으며 이 제3의 러시아 혁명은 틀림없이 결국은 사회주의자의 승리로 끝날 것입니다. 당면 과제 가운데 하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전쟁을 즉각 끝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주의 재산을 몰수하는 포그령으로 농민의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농민은 자신들이 노동자와 동맹해야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러시아에서 우리는 지금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 정부 건설에 전념해야 합니다.

3 밑줄 친 '혁명'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전선에 있는 병사들은 그들의 대표를 레닌에게 보냈다. 이반의 아들 미타도 대표단에 있었다. 페트로그라드에 도착하자 총성이 사방에서 들렸다. "노동자와 농민 혁명 만세",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 "전쟁을 끝내자!"라는 붉은 깃발들이 여기저기 휘날렸다. "레닌은 어디에 있어요?" 미타가 물었다. "스몰니 성당으로 가. 거기에서 봉기를 지휘하고 있어." 모든 노동자와 병사들이 레닌의 지도를 따랐다. 병사는 탄약고를 접수하였다. 노동자는 전화 교환국과 전보국을 접수하였다. 이제 레닌이 있는 스몰니 성당은 러시아 전역과 전화, 전보로 연결되었다. 부르주아, 정부 각료들은 항복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차르의 거울 궁전에서 저항하였다. 그러나 노동자와 병사는 그들을 손쉽게 체포하였다. 사회주의 혁명은 승리하였다. 오랫동안 러시아 인민을 지배한 지주와 자본가의 세상은 끝났다.

- '레닌 이야기' -

- ① 영국, 프랑스 등이 크림 전쟁에 참전하였다.
- ② 알렉산드르 2세가 농노 해방령을 발표하였다.
- ③ 스탈린이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다.
- ④ 니콜라이 2세가 두마(의회) 설치를 약속하였다.
- ⑤ 차르의 전제 정치에 맞서 브나로드 운동이 전개되었다.

11.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관화는 제후들의 지지를 받고 서 있는 (가)의 모습과 무너질 듯 위태롭게 앉아있는 교황 레오 10세의 모습을 대비하여 표현하였다. (가)은/는 신앙의 근거를 오직 성서라고 주장하면서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하고 교황과 대립하였다.

- ① 우신예찬을 저술하였다.
- ② 신학대전을 집필하였다.
- ③ 예수회 설립을 주도하였다.
- ④ 영국 국교회를 확립하였다.
- ⑤ 교회의 면벌부 판매를 비판하였다.

4-02-3) 중세 유럽 세계의 등요

루터(1483~1546)의 종교 개혁, 난이도 下

Key-Word

- : 제후들의 지지
- : 교황 레오 10세
- : 신앙의 근거를 오직 성서라고 주장
- : 『95개조 반박문』을 발표

- ① 에라스무스(1466~1536), 1511년
- ② 토마스 아퀴나스(1225~1274), 1267년
- ③ 로올라(1491~1556), 1534년
- ④ 엘리자베스 1세(재위 1558~1603), 통일법 반포, 1559년

가장 합리적인 개념의 시작 p.63

★루터(1483~1546)의 종교 개혁(비텐베르크)



<산피에트로 대성당>

- 01. 계기
 - 독일 지역(교황의 쟁소, 교황청의 착취 집중)
 - 교황 레오 10세(재위 1513~1521), 성 베드로 성당의 증축을 위해 면벌부(Indulgence) 판매
 - ⇨ 루터, 『95개조 반박문』 발표(1517)

- 02. 주장
 - 인간은 오직 신앙과 신의 은총에 의해서만 구제되는 것
 - 신앙의 근거는 『성서』(→ 교황과 교회의 권위 부정), 『성서』의 독일어 번역

- 03. 전개
 - 보름스 제국 의회(카를 5세(재위 1519-1556), 1521)에서 루터의 법적 보호 지위 박탈
 - 열방 제후들의 지지
 - 슈말칼덴 전쟁(루터파 ⇨ 교황파, 1546-1555)

- 04. 결과
 - 아우크스부르크 회의 체결(1555)
 - : 제후와 도시 지배자들의 종교 선택권 인정, 루터파 승인
 - 북부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전파

★ 아우크스부르크 회의(1555)
개인이 아닌 제후와 자유 도시가 루터파와 가톨릭교회 사이에서 종교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교황의 지배를 벗어난 새로운 교회가 처음으로 인정받았다.

2025 수능 특강 p.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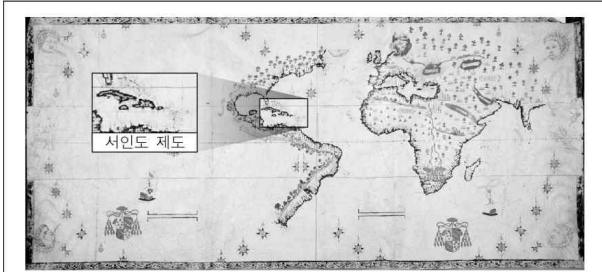
08 밑줄 친 '평화 조약'이 체결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신앙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신성 로마 제국 내에서 평화를 존중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황제와 선제후 및 제후들 그리고 영주들은 …… 루터파 신앙을 신봉하는 지역에 대해서 어떠한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 또 루터파 신자들의 양심과 지식 그리고 의지에 반하여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버리도록 강제하지 않을 것이다. …… 이곳 아우크스부르크에 모인 제후들 및 영주들, 그리고 이곳에 오지 못한 영주들이 보낸 사절들은 영적으로나 세속적으로 이 평화 조약에 합의하였다.

	(가)	(나)	(다)	(라)	(마)
백년 전쟁 발발	콜럼버스, 서인도 도착	마젤란 일행, 제도 세계 일주 성공	남트 식령 공포	30년 전쟁 시작	베스트팔렌 조약 체결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12.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이것은 콜럼버스의 항해 후 알게 된 서인도 제도 등의 지리 정보를 반영하여 (가) 이/가 제작한 세계 지도이다. (가) 은/는 콜럼버스의 항해 등을 후원하며 대서양 연안의 지리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라틴 아메리카 일대에서 식민지를 넓혀나갔다.

- ① 하와이를 자국 영토로 편입하였다.
- ② 데카브리스트의 봉기를 진압하였다.
- ③ 콜베르를 앞세워 중상주의 정책을 펼쳤다.
- ④ 아스테카 제국과 잉카 제국을 멸망시켰다.
- ⑤ 무적함대를 격파하고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였다.

4-03-1) 신항로의 개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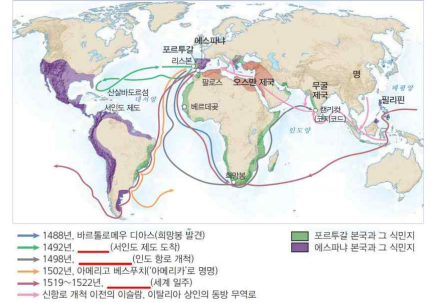
신항로 개척의 과정, 에스파냐, 난이도 下

Key-Word

- : 콜럼버스의 항해 후 알게 된 서인도 제도
- : 콜럼버스의 항해 등을 후원
- : 라틴아메리카 일대에서 식민지를 넓혀~

- ① 미국, 윌리엄 매킨리, 1897년
- ② 러시아, 니콜라이 1세(재위 1825~1855)
- ③ 프랑스, 루이 14세(재위 1643~1715)
- ⑤ 영국, 엘리자베스 1세(재위 1558~1603)

☆ 가장 합리적인 개념의 시작 p.68~69



【신항로 개척의 전개】

01. 이베리아반도 국가의 주도

- 지중해 무역 소외
- 대서양 진출에 유리

02. 신항로 개척

포르투갈* (1143~)	특징	• 상업 지향적
	인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엔히크(항해 왕자) 바르톨로메우 디아스 바스쿠 다 가마
에스파냐* (1469~)	특징	• 정복 지향적
	인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콜럼버스 아메리고 베스푸치 마젤란

【신항로 개척 이후 유럽인들의 활동】

01. 유럽 세계의 팽창

- 진정한 의미의 세계사 시작
- : 에덤 스미스(A. Smith, 1723-1790), 『국부론』(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중요한 사건, 1776)
- 원료 공급지, 상품 시장 확보 경쟁
- : 에스파냐 → 아스테카(코르테스, 1521) · 잉카 제국(피사로, 1533) 정복, 대농장 건설 및 광산 개발
- : 포르투갈 → 호르무즈 · 고아 · 몰라카 · 마카오 등의 무역 기지를 건설하여 항료 무역 전개

02. 세계적 교역망의 통합

- 동인도 회사(영국(1600), 네덜란드(1602))의 활동 → 교역의 활성화
- 중국산 비단 · 차, 인도산 면화의 유럽 유입 → 막대한 양의 은(銀)이 중국 · 인도로 이동
- : 일조편법(1573 · 1581), 지정은제(1712 · 1730)의 시행 뒷받침

☆ 2025 수능 특강 p.85

9 (가), (나)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가) - 하라파에 도시를 건설하였다.
- ② (가) - 새끼줄 매듭인 키푸를 사용하였다.
- ③ (나) - 지구라트라는 신전을 건설하였다.
- ④ (나) - 통치자인 파라오의 무덤을 만들었다.
- ⑤ (가)와 (나) - 에스파냐인의 침략으로 파괴되었다.

13.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크롬웰이 호국경에 취임하였습니다.
- ② 루이 필리프가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 ③ 연방주의에 입각한 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 ④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 ⑤ 메리와 윌리엄이 공동 왕으로 즉위하였습니다.

4-03. 국민 국가의 형성
 프랑스 자유주의 운동, 7월 혁명(1830), 난이도 下
Key-Word
 : 바스티유 광장
 : 자유주의자와 파리 시민 등이 일으킨 혁명
 : 의회를 해산하고 언론을 탄압하던 샤를 10세가 ~

- ① 영국, 청교도 혁명, 1653년
- ③ 필라델피아 연방 회의, 1787년
- ④ 프랑스 국민의회, 1789년 8월
- ⑤ 영국, 명예혁명, 1688년

☆ 가장 합리적인 개념의 시작 p.104

[★프랑스 7월 혁명(1830. 7월 27일)]

- 01. 배경
 - 빈 체제에 따른 부르봉 왕조 부활[루이 18세(재위 1815-1824)]
 - 샤를 10세(재위 1824-1830)의 보수적 전제 정치
 - : 7월 칙령(의회 해산, 선거권 제한, 언론·출판의 자유 억압, 1830)
- 02. 전개
 - 파리 시민[부르주아(Bourgeois)]의 봉기
 - : 아돌프 티에르(Adolphe Thiers, 1797-1877)의 지도
- 03. 결과
 - 샤를 10세 추방 → 부르봉 왕조 붕괴 → 루이 필리프(Louis-Philippe)를 '시민의 왕'으로 추대
 - : 루이 필리프 1세(재위 1830-1848), 입헌 군주정 수립(7월 왕정)
- 04. 영향
 - 벨기에 독립(from 네덜란드 연합 왕국, 1831), 폴란드 독립운동
 - 청년 이탈리아당 결성(마치니, 1831), 영국의 제1차 선거법 개정(1832)



<플라크루아,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프랑스 2월 혁명(1848. 2월 22일)]

- 01. 배경
 - 7월 왕정의 보수화(친부르주아 정책)
 - : 부유한 소수의 시민에게만 선거권 부여
 - 1830년대 산업화로 사회주의 확산과 노동자들의 정치의식 성장
- 02. 전개
 - 출하층 시민과 노동자 주도
 - : 기존 내각의 사임, 선거권 확대를 요구하며 봉기
- 03. 결과
 - 루이 필리프 1세 추방 → 제2 공화정 수립 → 루이 나폴레옹(1808-1873)을 대통령으로 선출
- 04. 영향
 - 오스트리아의 3월 혁명으로 메테르니히 실각과 영국 망명 → 빈 체제 붕괴
 -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 활성화 → 대(大)정원 시위(런던, 1848)
 - 독일 지역의 통일 문제와 헌법 제정 협의를 위한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 소집(1848-1849)
 - 헝가리와 보헤미아의 독립운동, 이탈리아의 통일 운동 고조



<오래이스 베르네, 수몰가(파리의 시가전)>

* 2025 수능 특강 p.108

2 밑줄 친 '혁명'의 결과로 옳은 것은?

국왕이 출판의 자유 철폐 등을 포함한 칙령을 발표한 후, 시내에 바리케이드가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이어 시민들이 정부군과 충돌하면서 혁명이 전개되었다. 멀리서 알 수 없는 소음과 총 소리가 들리다가, 한동안 모든 것이 조용해지기도 하였다. 모든 상점은 문을 닫았고, 사람들의 얼굴은 상기되었다. 칙령의 철폐를 주장하는 사람들, 샤를 10세를 타도하고 새로운 정치 체제를 만들자는 사람들이 한데 뭉쳐 바리케이드 앞에 서 있었다.

- ① 7월 왕정이 수립되었다.
- ② 총재 정부가 구성되었다.
- ③ 제2 공화정이 선포되었다.
- ④ 테니스코트의 서약이 발표되었다.
- ⑤ 정부군이 파리 코뮌을 무력으로 진압하였다.

14.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의장은 **조시 홀**에서 열린 대규모 회의에서 **스와데시 운동**을 지지하는 학생들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말하였다. 또한 **스와데시 운동**을 지지하는 학생들을 차별하고 교수를 해임한 콜라푸르 학교 당국의 행동을 비난하였다. 회의에 참가한 학생 사바르카르는 동포들에게 **영국을 포함한 외국 상품의 구매를 삼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 ① 탄지마트의 주요 내용을 분석한다.
- ② 헤지라가 일어난 배경을 살펴본다.
- ③ 콜카타 대회의 4대 강령을 조사한다.
- ④ 청년 튀르크당의 결성 계기를 파악한다.
- ⑤ 5·4 운동 당시 제기된 주장을 알아본다.

5-03-1) 인도의 민족 운동
인도 국민 회의의 반영 운동, 난이도 下
Key-Word
 : **스와데시 운동**
 : **영국을 포함한 외국 상품의 구매를 삼갈 것을 강력히 촉구**

- ① 오스만, 1839~1876년
- ② 이슬람, 622년
- ④ 오스만, 전제 정치 강화, 1889년
- ⑤ 중국, 대중국 21개조 요구 철폐·산둥반도의 권익 반환, 1919년

* 가장 합리적인 개념의 시작 p.242

[인도 국민회의의 활동]

- 01. 결성**
- 영국이 인도인 회유를 위해 정치 조직 결성 지원
 - 지식인, 관리, 민족 자본가, 지주 등의 주도로 조직(뭍바이, 1885)
- 02. 활동**
- ① 초기 영국에 협조하면서 점진적·합법적 개혁을 통해 인도인의 권의 확보에 주력
 - ② 영국의 **벵골 분할령 발표(1905)**
: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의 분열을 통해 인도 민족 운동의 약화 시도
 - ③ **콜카타 대회(틸라크, 1906)를 개최하여 반영 운동 전개**

- 1905년 영국령 인도 총독 G. N. 커존(Curzon)이 벵골주자 면적도 넓고 인구도 많아 한 사람의 장관이 다스리기에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동벵골과 서벵골로 나누어 통치하겠다는 벵골 분할령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발표는 자세 증역, 자플랜테이션 실시, 그리고 당시 반영 기운이 강했던 벵골을 나누어 인도인의 분열을 조장하는 데 실제 목적이 있었다.
- 벵골인은 벵골 분할에 불만이 많습니다. 이것은 영국인의 잔인하고도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스와데시(국산품 애용)**는 경제가 혼란한 인도에서 강력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도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매년 2억 루피 정도의 봉급·연금 등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이곳에 영국의 경제법을 적용한다는 말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모욕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 의장 나오로지(1825~1917)의 연설(1906)

- ④ 4대 강령 채택
: **스와라지(자치 획득), 스와데시(국산품 애용), 영국 상품 불매(보이콧), 국민 교육 진흥**
- ⑤ 영국이 **전 인도 이슬람교도 연맹**의 결성을 지원(1906) → 민족 운동의 분열 시도
- ⑥ 전 이슬람교도 연맹이 인도 국민회의를 지원하여 반영 운동 전개
- ⑦ 벵골 분할령 취소(1911) → 명목상 인도인의 자치 인정

* 2025 수능 특강 p.128

9 밑줄 친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운동의 창시자 람 모한 로이는 서구 사상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선구자로서 순수한 힌두교 교리를 따를 것을 사람들에게 호소하였다. 나아가 이 운동은 종교 개혁 운동에만 그쳤던 것이 아니고 사회 제도의 개혁까지 시도하였다.

- ① 무굴 제국 황제 폐위의 계기가 되었다.
- ② 양카라 전투가 일어나는 원인이 되었다.
- ③ 마라타 동맹이 결성되는 배경이 되었다.
- ④ 카스트제 반대와 사회 폐습 타파를 주장하였다.
- ⑤ 스와라지, 스와데시, 영국 상품 불매 등의 강령을 채택하였다.

15. 자료가 작성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청 황제 퇴위 후 **우대 조건에 관한 사항**

제1관 대청 황제는 퇴위 후에도 존호를 그대로 유지한다. **중화민국은** 대청 황제를 외국 군주의 예로 대한다. ... (중략) ...

제3관 대청 황제는 퇴위 후 잠시 궁성에 거처하다가 훗날 이 화원으로 옮긴다. 궁인들은 그대로 부릴 수 있다.

제4관 대청 황제가 퇴위한 후 종사와 능묘는 영원히 보존할 것이며, **중화민국은** 위병을 배치하여 보호한다.

- ① 만주국이 수립되었다.
- ② **신해혁명이 발생하였다.**
- ③ 청일 전쟁이 발발하였다.
- ④ 난징 조약이 체결되었다.
- ⑤ 태평천국 운동이 일어났다.

5-02-2 중국의 근대화 운동
신해혁명(1911), 난이도 下
Key-Word
 : **대청 황제 퇴위 후(1912. 2월)**
 : **중화민국(1912년 1월, 난징)**

- ① 만주사변(1931) → 만주국 수립(1932)
- ③ **푹도 해전 → 청일 전쟁 발발(1894)**
- ④ **제1차 아편 전쟁(1840~1842) → 난징 조약(1842)**
- ⑤ **홍수전, 상제회, 1851~1864년**

가장 합리적인 개념의 시작 p.176

[신해혁명(1911)]



<순원(1866~1925)>

01. 배경

- **순원의 혁명 운동**
 : 중국 (혁명) 동맹회 결성(도쿄, 1905)
 : **삼민주의(민족·민권·민생)의 감령 주창**

나는 유럽과 미국의 발전이 **3대 주의**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민족, 민권, 민생**이다. 로마가 멸망하고 나서 **민주주의**가 일어나고 구미가 독립하였다. 하지만 얼마 뒤에 그 나라들도 제국이 되어 전제 정치를 행하자, 피지배자는 그 고통을 참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민주주의**가 일어났다.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걸쳐 전제 군주제가 무너지고 입헌 국가가 세워졌다. 이제는 경제 문제가 정치 문제에 이어 일어나 **민주주의**가 유행하고 있다.

- 『민보』, 발간사(1905. 12. 26.)

02. 전개

- ① 청(淸),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민간 철도를 국유화**하고 이를 담보로 외국에서 차관 도입 시도
- ② 철도 국유화 반대 운동 전개
- ③ **쓰촨 봉기** 발생[보로(保路) 운동, 1911. 9월]
- ④ **우창에서 신군 봉기**(1911. 10월)
 : 중국 전역 확대 → 각 성(城)의 독립 선언
- ⑤ **중화민국 수립(1912. 1월)**
 : 임시 대통령이 쑨원 취임, **난징* 도읍**
 : 위안스카이(1859~1916)의 혁명군의 타협
- ⑥ **청 왕조의 멸망(1912. 2월)**
- ⑦ **위안스카이**
 : 제2대 임시 대통령 취임(1912. 3월)
 : 혁명과 탄압, 의회 해산, **제제 운동(1913~1915)**
- ⑧ 위안스카이 사망(1916) 이후 **군벌 시대 전개**



03. 결과

- 아시아 최초의 민주 공화정 수립

가장 2025 수능 특강 p.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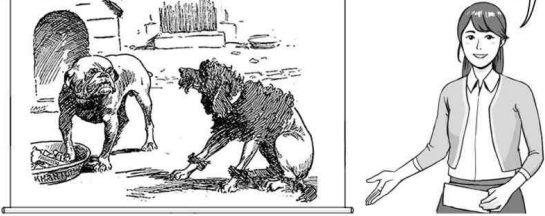
5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누카이의 소개로 일본에서 판보이찌우를 만나게 된 (가) 은 자신이 제창한 삼민주의를 설명하면서 입헌 군주제의 잘못을 비판하였다. 또한 자신이 조직한 중국 동맹회에 가입하여 중국 혁명을 도울 것을 요청하였고, 중국에서 만약 혁명이 성공한다면 그다음에 베트남의 독립 운동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제안하였다. 판보이찌우에 대한 (가)의 제안은 중국의 광둥에서 무장 폭동을 일으키기 위해 바로 인근에 있는 베트남을 혁명 전초 기지로 삼으려는 계획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판보이찌우는 중국 동맹회가 베트남의 독립을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라 주장하였고, 결국 두 사람 사이의 협상은 결렬되었다.

- ① 태평천국을 세웠다.
- ② **군기처를 설치하였다.**
- ③ 동유 운동을 전개하였다.
- ④ 삼번의 난을 진압하였다.
- ⑤ **중화민국 임시 대통령이 되었다.**

16.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그림은 『이브닝 익스프레스』에 실린 풍자화입니다. 불도그로 표현된 (가) 이가 '파쇼다'라고 적혀 있는 뼈다귀를 담은 밥그릇에 앞발을 집어넣고 있고, 푸들로 표현된 프랑스가 이를 지켜보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가) 은/는 중단 정책을, 프랑스는 횡단 정책을 추진하다가 파쇼다에서 충돌하였습니다.



- ① 플라시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 ② 인도차이나 연방을 조직하였다.
- ③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전개하였다.
- ④ 청과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하였다.
- ⑤ 페리 제독의 함대를 일본에 파견하였다.

5-01-2)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지 분할 열강의 아프리카 분할, 영국, 난이도 下

Key-Word : 파쇼다 : 중단 정책

- ② 프랑스, 1887년
- ③ 독일, 1915년
- ④ 러시아, 1689년
- ⑤ 미국, 1853년

가장 합리적인 개념의 시작 p.247

★제국주의 열강의 아프리카 분할

02. 분할 정책과 충돌

1) 영국의 중단 정책과 3C 정책

- 중단 정책 : 수에즈 운하 관련권 장악(1875), 이집트 보호국화(1882) : 보어 전쟁(1899-1902), 케이프 식민지를 남아프리카 연방으로 조직(1910)
- 3C 정책[콜카타(Kolkata), 카이로(Cairo), 케이프타운(Cape Town)]
- 케냐 이남의 탕가니카, 모잠비크 북부의 키운가 삼각 지대 확보** (from 독일, 1922)



<케냐내(말라리아 예방약)>

2) 프랑스의 횡단 정책 추진

- 알제리 장악(1834), 튀니지 보호령화(1881)
- 사하라 사막 확보** : 콩고 분할(with 벨기에), 프랑스령 서아프리카(1895-1958)

3) 벨기에

- 레오폴드 2세(재위 1865-1909) : 중앙아프리카의 콩고에 대한 영유권 선언
- 루안다, 우분디를 보호령화(from 독일, 1922)

4) 독일

- 남서아프리카, 동아프리카, 토고, 카메룬 등 차지
- 모토코 사건(1905 · 1911) : 탕헤르 지역에서 프랑스와 충돌 : 영국 · 미국의 중재 → 콩고 북부 할양(1911)

5) 포르투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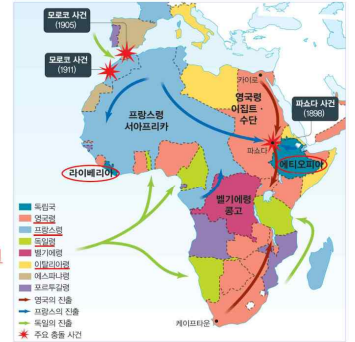
- 앙골라와 모잠비크 연결 → 앙골라 독립(1975) : 『장미 빛 지도』 구상(1886)

6) 파쇼다 사건(수단, 1898. 7월)

- 영국(중단) ↔ 프랑스(횡단), 독일을 견제하려는 프랑스의 양보

03. 독립국 유지

- 라이베리아(자유의 나라, 아프리카 최초의 공화국, 1847),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분할 정황과 열강의 충돌>

가장 합리적인 개념의 시작 p.124

1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세기 후반 식민지를 확보한 국가들이 해당 지역에 보호 관세를 도입하자 식민지를 둘러싼 첨예한 대립이 발생하였다. 이에 (가)의 비스마르크는 더 이상 이권 쟁탈전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을 거절할 수 없었다. 이후 (가)은/는 카메룬, 토고, 나미비아와 뉴기니아 일부, 탄자니아를 식민지로 삼았다.

- ① 하와이 제도를 병합하였다.
- ② 수에즈 운하를 건설하였다.
- ③ 밀레트 제도를 시행하였다.
- ④ 데카브리스트의 봉기를 진압하였다.
- ⑤ 모로코를 둘러싸고 프랑스와 대립하였다.

17. 밑줄 친 '국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교황 스테파누스 2세는 롬바르드족의 위협과 비잔티움 제국 황제와의 정상 파괴를 둘러싼 갈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그는 프랑크 왕국으로 행차하여 국왕에게 세례를 주고 왕위의 정통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국왕은 이에 대한 보답으로 군대를 보내 롬바르드족을 물리치고 라벤나 지역을 점령하여 교황에게 기증하였다. 이 땅은 교황령의 시초가 되었다.

- ① 상수시 궁전을 축조하였다.
②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하였다.
③ 카롤루스 왕조를 개창하였다.
④ 성 소피아 성당을 건립하였다.
⑤ 교황으로부터 서로마 황제의 관을 받았다.

4-02-1) 중세 유럽 사회의 형성
프랑크 왕국의 발전과 분열, 피핀 3세, 난이도
Key-Word
: 교황 스테파누스(스테파노) 2세(재위 752~757)
: 비잔티움 제국 황제와의 정상 파괴를 둘러싼 갈등
: 프랑크 왕국으로 행차 ~ 왕위의 정통성을 확인
: 롬바르드족을 물리치고 라벤나 지역을 점령하여 교황에게 기증 ~ 교황령의 시초(756)
① 프리드리히 2세(재위 1740~1786), 1747년
② 옥타비아누스, 기원전 31년
④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재위 527~565), 537년
⑤ 카롤루스 대제(재위 768~814), 800년

가장 합리적인 개념의 시작 p.31

프랑크 왕국(Regnum Francorum)의 성립과 발전

- 02. 발전
1) 메로베우스(Meroveus) 왕조(481-751)
- 클로비스(재위 481-511)
: 왕조 개창, 갈리아 중부까지 영토 확장(486)
: 로마 가톨릭교(아타나시우스파)로 개종(496)
↳ 중세의 중심 세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궁재(Majordomus) 카롤루스 마르텔루스(680-741)
: 피핀 2세의 아들, 권력 투쟁 승리 -> 실권 장악(717-741), 프랑크의 호칭 획득
: 투르·푸아티에 전투(732)에서 이슬람 군대(우마이야 왕조) 격퇴 -> 로마 교황청의 제휴 시도
2) 카롤루스(Karulus) 왕조(751-843)
- 피핀 3세(재위 751-768)
: 카롤루스 마르텔루스의 아들, 궁재 계승(741-751)
: 킬데리쿠스(Childeric, 힐데리히) 3세(재위 743-751)를 폐위하고 왕조 개창(751)
↳ 교황 자카리아스(Zacharias, 재위 741-752) ~ 프랑크 왕국의 유대 강화
↳ 롬바르드 왕국을 정벌하여 라벤나 지방을 교황청에 기증(756) -> '로마인들의 보호자'
- 카롤루스 마그누스(Carolus Magnus(대제), 재위 768-814)
: 수도 아헨(Aachen)
: 서로마의 영토 회복, 롬바르드 왕국 정복, 이베리아반도 진출[론세스바에스 전투(779), 778-802], 동유럽의 작센족 정복(정복지에 교회 건설 -> 가톨릭교로 개종)
: 교황 레오 3세로부터 서로마 황제 대관(800), 임페라토르· 아우구스투스(Augustus)의 칭호
: 봉치 제도, 군사 제도 정비
: 중앙 집권화 시도(백·공, 순찰사의 지방 파견)
: 비잔티움 황제를 대신해 로마 교회의 새로운 보호자 역할
3) 카롤루스 르네상스(Carolus Renaissance)
- 카롤루스 마그누스의 문예 부흥 노력
- 궁정 학교 설립, 학자 우대 정책[알킨(Alcuin)], 라틴어 문법과 논리학 교육
- 수도원 중심의 학문과 고전 연구 후원
- 중세 유럽 문화의 기틀 마련(로마 문화 + 크리스티교 + 게르만 문화)

2025 수능 특강 p.78

01 (가), (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 그가 크리스마스 미사를 위해 성 베드로 성당에 나타났다. 교황 레오 3세는 그의 머리에 서로마 황제의 관을 씌웠다. 그러자 새로운 황제의 즉위를 환영하는 함성이 터져 나왔다. "신의 뜻으로 즉위하셨도다! 황제에게 생명과 승리를 주소서!"
(나) 로타링기아의 국왕이 후사 없이 사망하자 서프랑크의 카롤루스 2세가 로타링기아 지방을 병합하였다. 이에 동프랑크의 루도비쿠스 2세가 반발하며 전쟁 발발 위기에 직면하였으나 메르센에서 양국이 로타링기아 분할에 합의하는 조약을 맺었다.

- ① 베르딩 조약이 체결되었다.
② 메로베우스 왕조가 붕괴되었다.
③ 투르·푸아티에 전투가 벌어졌다.
④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 편찬되었다.
⑤ 게르만족 출신 오도아케르가 용병 대장이 되었다.

18.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반동 회의의 폐막 연설에서 네루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세계 전체가 양 진영으로 나뉘었다면 그 결과는 어떨겠습니까? 피할 수 없는 결과는 아마 전쟁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냉전의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는 비동맹 지역을 줄이는 행위는 위협하며, 전쟁으로 가는 길을 의미합니다.”

- ① 빈 체제의 붕괴
- ② 전체주의의 등장
- ③ 제3 세계의 형성
- ④ 국제 연맹의 창설
- ⑤ 산업 혁명의 배경

6-01-1 냉전 체제의 형성과 격화

냉전 체제의 확산과 제3 세계의 등장, 난이도 下

Key-Word

- : 반동 회의(1955)의 폐막 연설
- : 네루[인도의 초대 총리, 재임 1947~1964]
- : 세계 전체가 양 진영으로 나뉘었다면
- : 냉전의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는 비동맹 지역

- ① 오스트리아 3월 혁명, 1848년
- ② 경제 대공황 이후, 1929년
- ④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1920년
- ⑤ 영국, 1768년

☆ 가장 합리적인 개념의 시작 p.276

★제3 세계(Third World)의 성립



〈나세르, 네루, 티토〉

01. 주도

- 아시아·아프리카의 신생 독립국
- 미국(제1 세계)과 소련(제2 세계)의 영향력 배제
- 비동맹 중립주의·독자 노선 표방

02. 등장

- 콜롬보 회의(1954)
- : 저우언라이(중국), 네루(인도) 주도
- : 제3 세계임을 확인, 평화 공존의 5원칙 채택

최근 중국과 인도는 하나의 협정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이 협정에서 두 나라의 관계를 이끌어갈 다음과 같은 원칙을 규정하였다.

01. 영토와 주권의 상호 존중 02. 상호 불가침 03. 상호 내정 불간섭 04. 포혜 평등 05. 평화 공존

서로 관계된 나라들이 모두 그 나라의 영토와 주권, 상호 불가침을 보장받는다. 이 국가들은 평화 공존과 상호 우호 관계를 지킬 수 있다.

03. 발전

- 반동 회의(아시아·아프리카 회의, = AA 회의, 1955)
- : 주최국(인도네시아·버마·파키스탄·스리랑카·인도), 아시아·아프리카의 29개국의 대표 참가
- : 반식민주의·반인종주의 표방, 세계 평화 및 협력에 관한 선언문 채택
- : 평화 10원칙 채택
- 제1차 비동맹 회의(= 베오그라드 회의, 1961)
- : 티토, 네루, 수카르노, 나세르 주도
- : 유고슬라비아의 베오그라드 개최
- : 비동맹 국가들 사이의 협력 강화, 미국 및 소련이 주도하는 군사 동맹의 불참 선언

☆ 평화 10원칙

- 01. 기본적 인권과 국제 연맹 헌장 존중
- 02. 주권과 영토 보전 존중
- 03. 인종과 국가 간의 평등
- 04. 내정 불간섭
- 05. 모든 국가의 단독 집단의 자위권 존중
- 06. 대국에 유리한 집단 방위 배제
- 07. 문력 징복 배제
- 08.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
- 09. 상호 이익협력 촉진
- 10. 정의와 국제 의무 존중

04. 역할

- 국제 연합(UN)에서 차지하는 비중 증가
 - 냉전 체제 완화와 다극화에 기여
 - 남북문제(problems between the industrialized North and the impoverished South) 제기
- 주로 북반구에 위치한 선진국과 적도 남반구에 위치한 개발도상국 사이의 소득 격차에서 생기는 국제 정치 및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의미한다.

☆ 2025 수능 특강 p.148

02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연설로 보는 세계사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식민주의를 함께 혐오하며 연대한다. 우리는 인종주의를 혐오하며 연대한다. 그리고 우리는 세계의 평화를 지키고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함께 결의하며 연대한다. …… 식민주의는 아직 죽지 않았다. 광대한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자유롭지 못하는데 어찌 그것이 죽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아시아·아프리카 회의(반동 회의)에서 인도 수상 네루가 한 연설의 일부이다. 이 연설에서 그는 식민주의를 배척하고 제3 세계의 단결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가)

- ① 트루먼 독트린에 반영되었다.
- ② 제1차 비동맹 회의로 이어졌다.
- ③ 태평양 전쟁 발발의 원인이 되었다.
- ④ 브레턴우즈 체제 성립에 기여하였다.
- ⑤ 페레스트로이카 정책 시행의 배경이 되었다.

19. 다음 지령이 내려진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지령 제1호

공격일 : 1900년 9월 1일
공격 시각 : 오전 4시 45분

서부에서는 **교전 개시의 책임을 전적으로 영국과 프랑스에 지우는 것이 중요하다.** 당분간 사소한 국경 침범에는 국지적인 조치로 대응해야 한다. ... (중략) ... 영국과의 전투를 수행할 때에는 공군을 이용하여 영국의 해상 보급과 군수 산업, 프랑스로의 병력 수송을 교란할 준비를 한다.

아돌프 히틀러

(가)	(나)	(다)	(라)	(마)
-----	-----	-----	-----	-----

러일 전쟁 발발 사라예보 사건 발생 베르사유 조약 체결 대공황 발생 국제 연합 창설 베를린 장벽 설치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5-04-3) 두 차례의 세계 대전
제2차 세계 대전(1939~1945), 난이도 下
Key-Word
: 9월 1일, cf) 제1차 세계 대전[1914년 7월 28일]
: 교전 개시의 책임을 ~ 영국과 프랑스에 지우는 것
: 아돌프 히틀러

러일 전쟁 발발, 1904년 2월 8일
사라예보 사건, 1914년 6월 28일
베르사유 조약 체결, 1919년 6월 28일
대공황 발생, 1929년 10월 24일
국제 연합 창설, 1945년 10월 24일
베를린 장벽 설치 시작, 1961년 8월 13일

가장 합리적인 개념의 시작 p.268~269

★제2차 세계 대전의 발발과 전개(1939~1945)

- 01. 독일의 침략**
- ① 폴란드 침공(1939. 9월 1일) ⇨ 영국과 프랑스의 대독 선전 포고(1939. 9월 3일)
 - ②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침략(1940. 4월) ⇨ 파리 점령(앙리 페탕, 비시 정부 수립, 1940. 6월)
 - ③ 이탈리아 ⇨ 이집트(1940. 9월), 그리스 침공(1940. 10월)
 - ④ 독·소 불가침 조약 파기 ⇨ 소련 영토로 진격** (바르바로사 작전, 1941. 6월)
: 전쟁 장기화에 대비, 식량과 석유 확보 목적
- 02. 연합국의 대응**
- 드골을 중심으로 자유 프랑스(La France Libre) 수립(영국 런던, 망명 정부, 1940. 6월)
: 레지스탕스 운동(독일에 대한 항전) 전개
 - 영국의 처칠 내각(1940~1945)
: 독일군 상륙 저지, **윙케르크 다이노모 철수 작전**(1940. 5~6월)
- 03. 대서양 헌장(1941. 8월)**
- 루스벨트와 처칠 회동(영국 군함 프린스 오브 웨일스 호)
 - **전후 자유 무역 활성화와 국제 평화 수립의 원칙 천명**
- 04. 태평양 전쟁 발발(1941. 12월 7일)**
- ABCD(미국·영국·중국·네덜란드) 포위망으로 경제 봉쇄
 - 일본의 하와이 **진주만 기습**
- 05. 연합국의 반격과 전후 처리 논의**
- ① 미국의 **미드웨이 해전 승리**(1942. 6월)
 - ② 독일의 **스탈린그라드 전투 패배**(1942~1943)
 - ③ 이탈리아 항복(1943. 9월)
 - ④ 카이로 회담(1943. 11월), 테헤란 회담(1943. 11~12월)
 - ⑤ **노르망디 상륙 작전**(1944. 6월) → 파리 해방과 **비시 정부 붕괴**(1944. 8월)
 - ⑥ 알타 회담(1945. 2월)
 - ⑦ 히틀러 사망(1945. 4월) → 독일 항복(1945. 5월)
 - ⑧ 포츠담 회담(1945. 7월)
 - ⑨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1945. 8. 6.),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1945. 8. 9.)
 - ⑩ 일본의 무조건 항복 선언(1945. 8. 15.)



* 2025 수능 특강 p.140

7 밑줄 친 '이 전쟁' 중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도는 스탈린그라드 전투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이 전쟁에서 폴란드를 침공하고 프랑스의 파리를 점령한 독일은 독소 불가침 조약을 파기하고 소련을 침공하였다. 그러나 스탈린그라드로 진입한 독일군은 시가지 건물들에 가로막혀 본인들의 장점인 기갑 부대를 활용한 전격전(電擊戰, Blitzkrieg)*을 펼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소련군은 독일군을 불가강 일대까지 몰아붙이는데 성공하였고,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소련군의 승리로 이 전쟁의 흐름이 크게 바뀌었다.


* 전격전: 독일군이 전투 중에 전차 등을 이용하여 기동성을 최대한 발휘한 전술

- ① 세포이의 항쟁에 참여하는 농민
- ② 카이로 회담에 참석하는 각국 대표단
- ③ 제1차 국공 합작 성립을 보도하는 기자
- ④ 오스트리아 병합을 발표하는 독일 총통
- ⑤ 소비에트 정부 수립에 환호하는 볼셰비키 당원

20. (가)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계사 신문

장칭, 재판에 회부되다



지난 20일 중국 베이징 최고 인민 법원에서 장칭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그녀는 홍위병을 동원하여 (가)에 앞장서고, 류사오치 등 실용주의자들과 수많은 예술인을 억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였다.

- ① 마오쩌둥의 주도로 추진되었다.
- ② 중국 공산당의 대장정 중에 전개되었다.
- ③ 철도 국유화 조치에 반발하여 시작되었다.
- ④ 제2차 국공 합작이 이루어지는 배경이 되었다.
- ⑤ 인민 공사를 설립하여 생산성 향상을 꾀하였다.

5-01-2) 냉전 체제의 변화와 사회주의권의 붕괴
 중국의 문화 대혁명(1966~1976), 난이도 下

Key-Word
 : 장칭(1914~1991)
 : 홍위병을 동원
 : 장서고, 류사오치 등 실용주의자들과 수많은 예술인을 억압한 혐의로 재판

- ② 중국 공산당의 대장정(1934~1936)
- ③ 신해혁명
- ④ 중일 전쟁
- ⑤ 대약진 운동(1958~1961)

☆ 가장 합리적인 개념의 시작 p.181

【중국의 공산화와 변화】

- 01. 중국의 공산화
 - 충칭 평화 협정(1945. 10. 10.)과 결별 ⇒ 국공 내전(1946. 6.~1949. 12.)
 - 공산당의 우세 속에서 중화 인민 공화국 수립(마오쩌둥, 1949. 10. 1.)
 - : 토지 개혁(불건적 지주제 폐지), 은행과 각종 기업의 국유화, 제1차 5개년 계획 추진(1953~1957)
- 02. 대약진 운동(제2차 5개년 계획, 1958~1961)
 - 후루쇼프(소련 공산당 서기장, 1955~1964) 시기 소련과의 관계 악화 → 중소 이념 분쟁 시작(1956)
 - 전국 각지에 인민 공사 설립(1958)
 - 경제 부흥 모색, 영국의 철강 산업을 따라잡겠다는 목표
- 03. ★문화 대혁명(1966~1976)
 - 마오쩌둥 실각(1959) ⇒ 대약진 운동 실패(목표치 과다, 자연재해) ⇒ 류사오치, 마오쩌둥의 권력 투쟁 심화 ⇒ 마오쩌둥 · 장칭 주도로 홍위병 조직 ⇒ 중국의 전통 가치(四舊)와 부르주아 이념 공격
- 04. 덩샤오핑의 실용주의 노선(흑묘백묘론, 1978~1989)
 - 농업 · 공업 · 국방 · 과학 기술의 현대화, 점진적인 개혁과 개방 정책(동남 해안 경제특구, 1979~)
 - 인민 공사 폐지, 기업의 이윤 추구 인정, 미국과 국교 정상화(1979)
- 05. 제3차 톈안문(天安門) 사건(= 6·4 사건, 1989. 4~6월)
 - 후야오방 추모, 지식인 · 학생 주도, 부정부패 근절과 민주화 요구 → 중국 공산당의 무력 진압
- 06. 홍콩 반환(영국, 1997), 마카오 반환(포르투갈, 1999), 베이징 올림픽 개최(2008)

☆ 2025 수능 특강 p.148

04 (가) 사건이 전개되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소련도 (가)을/를 예의주시하였으며 그 실체를 마오쩌둥이 권력 투쟁을 은폐하고 가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일간지 『이즈베스티야』는 레닌의 혁명과 대비시키며 “중국의 (가)은/는 어쩌서 지식을 거부하는가!”라고 비난하였으며, 소련 공산당 기관지 『프라우다』는 “현재 중국에서 벌어지는 사태를 보면, 그들은 문화를 표방하지만 문화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힐난하였다.

- ① 대약진 운동이 시작되었다.
- ② 홍위병이 지식인을 공격하였다.
- ③ 중화 인민 공화국이 수립되었다.
- ④ 중국 공산당이 대장정을 단행하였다.
- ⑤ 동남 해안 지대에 경제특구가 설치되었다.